

해외시장동향	동남아	싱가포르 aT
--------	-----	---------

1. 현지시장 포커스

□ 싱가포르

- 미국 분유에서(미국 FDA, 2010-09-22, Abbott사 Similac제품 리콜) 멜라민 성분 검출로 인해 싱가포르 AVA는 서둘러 진화에 나섬. 멜라민이 함유된 비료의 사용으로, 야채 및 과일도 멜라민을 함유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AVA는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모든 신선과일 및 야채에 대하여 엄격한 검역확인절차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힘
- AVA는 2009년 싱가포르에 수입된 40만톤의 야채와 35만톤의 과일에 대하여 수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된 coriander, chili, long bean 등의 야채에서 금지된 살충제인 Carbofuran을 검출하여 900Kg에 대하여 폐기처분 한 바가 있다고 밝힘
- AVA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식량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됨. 수산양식업 분야 11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목표량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 달걀과 야채분야 22개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어 각각 소비량의 30%와 10%를 자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출처 : Strait Times, AVA, SFMA)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무역진흥청 (MaTrade)은 9월 28일 ~ 10월 1일 영국 London 및 Birmingham에서 개최된 식품부문 수출상담회를 통해 MYR 1.1백만 (US\$ 35만)의 현장주문 및 MYR 13.9백만 (US\$ 447만)의 계약물량을 확보하였다고 발표 함. 상담회에 초청된 총 35명의 바이어들은 말레이시아의 식재료, 향신료, 냉동식품, 커피, 건강음료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임. 11월에 개최되는 International Trade Malaysia 박람회 및 시설견학 일정 등에 전원초청이 되었다고 밝힘

□ 태국

- 7월의 성공적인 무역사절단 방문 이후, 태국과 브라질은 교류확대를 위한 Thailand-Brazil Business Council의 설립에 합의하며, 다양한 상호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먼저, 세계 1, 2위의 설탕 수출 국가로서 상호 긴밀한 정보교류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 2016년 올림픽 개최의 준비를 위한 태국산 건설자재의 수입 ; 브라질의 재생 에너지 기술의 교환 ; 그리고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함
- Bangkok거리에서 판매되는 과일들이 신선한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위험한 수준의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1개월간 거리 판매상들의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과일판매상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THB 20,000 (약 U\$ 650) 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Bangkok 시청 및 태국 식약청의 조사결과, 거리에서 판매되는 과일의 67%에서 coliform bacteria가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40%에서 항균물질이 검출 되었으며, 64%에서 유해한 화학색소가 검출이 되었음

(출처: The Nation, AFP, Newvine, 종합)

□ 인도네시아

- 수급불균형으로 설탕부족사태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9월 21일 PT Perusahaan Nusantara 9, 10, 11, PT Rajawali Nusantara Indonesia (RNI), PT Perusahaan Perdagangan Indonesia (PPI) 및 국영 유통회사인 Bulog 등 6개 회사에 총 45만톤의 설탕수입 면허를 발급하였음
- 무역부 Mari Elka Pangestu 장관은, 설탕의 2010년말 예상재고가 약 48만톤으로 2개월분의 소비분에 불과하여, 수입면허를 조기에 집행하게 되었으며, 약 15만톤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입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 설탕부족 상황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0월 11일 인도네시아 자국 설탕 생산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확장을 위해 총 IDR 229.5억 (약 U\$ 255만)의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산업부의 Chanty Triharso 기계산업국장은, 동 자금의 지원조건이 자국산 기계의 구입으로 한정된다고 지정함
-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원활한 경제교류 및 무역을 위한 경제포럼 상설기구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무역부 Mari Elka Pangestu 장관에 따르면, 양국간의

교역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양국간에는 은행간거래에 관한 협정 또는 직접적인 운송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교역확대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인도네시아 - 러시아간의 무역규모는 다음과 같음 :

	2009년	2010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 러시아	US\$ 3.16 억	US\$ 2.42 억
러시아 -> 인도네시아	4.58	5.40
총 교역 규모	US\$ 7.74 억	US\$ 7.82 억

(출처 : Intellasia, ASEAN Affairs, Jakarta Post, Antara 종합)

□ 필리핀

- 필리핀 FDA는 기준대비 함량미달로 판명된 미국계 Mead Johnson의 2개 유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림. 우유보조식품의 경우 100 칼로리당 3~6 gram의 지방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해당 제품들은 1.34~1.5 gram만을 함유하고 있어 회수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미 구매한 제품도 반품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베트남

- 베트남이 맥주에 대한 호화세를 감세시키면서, 베트남의 맥주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베트남이 수입맥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수입세 (47%), 호화세 (75%), 부가세 (10%) 등의 3개 세금 중 2010년에 호화세를 45%로 감세시키자, 호주, 벨기에, 독일, 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맥주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감세에도 불구하고 맥주에 대한 관세징수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2% 급증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베트남의 수입맥주 관세 일정

	2009	2010	2012
수입세 (Import Tax)	10%	10%	10%
호화세 (Luxury Tax)	75%	45%	30%
부가세 (VAT)	19%	10%	10%

- 미국계 BAT의 현지법인인 BAT-Vinataba에게 설립허가조건 위반으로, VND 910억 (약 US\$ 460만) 의 벌금과 VND 2,630억 (약 US\$ 12.1 백만)의 추징금이 부과 되었음. BAT-Vinataba의 허가조건은 초기 2년 소득세 유예, 향후 3년 소득세 50% 감면, 그

리고 7년 이내 지역내 원료 40% 이상 사용 조건 등이었으나 ; Bat-Vinataba는 담배 원료를 지역농민이 아닌 일반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아 40%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소득세 유예 및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하여, 사업기간 전기간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됨

- 유제품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베트남 재무부가 10월 1일 발효되는 Circular 122를 발표하자, 유제품 주요 공급국가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EU 등이 WTO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재무부 가격통제국의 Nguyen Tien Thoa 국장은, 동 Circular는 가격안정 대상품목을 지정한 2008년의 Decree 75/2008/ND-CP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계국들이 협조할 것을 당부. 연초부터 계속되는 베트남 VND의 평가절하로, 베트남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선진국들은 꾸준히 가격을 인상시켜 왔음

(출처 : VCCI, VNN, VOV, SEATCA, Daily News 종합)

2. 농산물 수출입 동향

□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9월 한국산 농산물 수입은 금액 US\$ 927만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2.1% 증가하였음. 8월의 여러 행사 (귀신의 달, 청소년올림픽)를 치루고 9월 이후 경제 및 시장 상황은 정상화 되어가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환율우려 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나. 한국의 대 싱가포르 2010년 06월 및 2010년 07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USD)

	2010년 8월	2010년 9월	증감(%)
농산물	9,072,960	9,265,711	2.1
전 분	70,297	66,113	- 6.0
과실류	365,658	380,497	4.1
과즙음료	312,580	138,278	- 55.8
채소류	147,141	35,349	- 76.0
소오스류	81,525	81,559	0.1
커피류	335,471	642,020	91.4
필터담배	2,411,893	2,437,452	1.1
인삼류	1,448,247	10,087	- 99.3
주 류	253,429	887,405	250.2
음 료	134,637	171,253	27.2
과자류	166,761	131,057	- 21.4
면 류	367,639	232,665	- 36.7
국 수	72,403	93,242	28.8
라 면	241,104	81,596	- 66.2

출처: KATI

□ 그 외 아세안 국가

- 9월 한국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배 (1,777%), 포도 (97%), 인삼음료 (2,351%), 커피 (197%), 권련 (386%) 등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면류 (-24%), 버섯류 (-19%), 채소류 (-50%) 등의 감소 물량을 이기지 못해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33.9%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 베트남은 과실류 (-86%), 버섯류 (-20%), 소오스류 (-32%), 연초류 (-75%) 등의 감소세를, 채소류 (29%), 커피류 (110%), 인삼류 (178%) 등의 증가로 막기에는 역부족하여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19% 감소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과실류 (107%), 멜론 (401%), 고추 (1,664%) 등이 증가를 보이며, 전월대비 총금액이 71.0%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 태국은 과실류, 빵류제조용 (105%), 주류 (203%) 등이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채소류 (-94%), 고추 (-100%), 소오스류 (-71%), 커피류 (-98%)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13% 감소하였음. 필리핀은 전분 (-61%), 과실류 (-13%), 채소류 (-24%), 인삼류 (-100%) 등이 감소하여, 버섯류 (61.5%), 사료 (49%), 소오스류 (120%), 커피 (45%) 등 증가에도 전월대비 수입금액이 26% 감소를 기록하였음
- 9월 총금액별로는 태국이 13%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S1,355만불을 기록하며 관할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 베트남은 수요의 감소에도 US1,100만불로 2위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수입금액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US1,031만불 ; 싱가포르의 소폭 증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각기 26% 및 9%의 감소를 기록함
- 전체적으로, 한국의 가을 주요 상품인 과실류의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휩쓸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 수확시기를 앞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시장상황, 신정부 취임후 농산정책의 대개혁을 진행 중인 필리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금액이 약 9% 감소하였음. 싱가포르는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며 소폭상승 하였으며 ;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수확전망이 빛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세안 국가의 한국산 식품 수입 동향

	2010년 8월(USD)	2010년 9월(USD)	증감율(%)
말레이시아	7,919,450	5,234,212	-9.1
베트남	13,577,272	11,008,453	-18.9
싱가포르	9,072,960	9,265,711	2.1
인도네시아	6,031,530	10,313,082	71.0
태국	15,581,104	13,548,552	-13.0
필리핀	11,146,956	8,205,670	-26.4

출처 : KATI

3. 경제 동향

□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양대 곡물회사 중의 하나인 Olam International이 세계 5대 곡물 메이저 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Louis Dreyfus와의 기업합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됨. 프랑스의 Les Echos지에 따르면, Louis Dreyfus는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Olam과의 기업연합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인수합병으로 알려지고 있음. Olam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가투자청은 대화가 초기단계에 있다고 언급
- 싱가포르 선물거래소 (SMX)는, 베트남 최대의 후추 수출업체인 Phuc Sinh Corporation와 MOU를 체결하여, 세계 최초로 후추의 선물거래를 하는 선물거래시장을 갖추게 됨. 2010년 8월 신규출범하였으나, 세계적인 뉴욕, 런던, 시카고 등의 선물시장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싱가포르 SMX는, 이번 계약을 통하여 SMX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출처 : Asia One, Phnom Penh Post, Channel News Asia 종합)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정부는 9월 21일, 2020년 선진국 진입 목표 추진 프로그램인, 국가 주요 경제 분야 (National Key Economic Area, NKEA) 에 대한 발표를 하였음
- NKEA 농경분야의 경우, 농경분야의 GNI 기여는 현재의 MYR 290억 (약 U\$ 93억)에서 2020년에는 MYR 490억 (약 U\$ 160억) 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서 75,000의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의 2~4배 상승을 달성하게 된다고 소개함

(출처 : Bernama)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가 2010년 4월 1일부로, 코코아 원두의 수출에 수출세를 적용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코코아 가공공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10월 18일, 산업부 농경국의 Benny Wachjudi 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코코아 가공공장의 신규 설립을 신청한 기업은 싱가포르의 Olam, 말레이시아의 Guanchong, 미국의 Cargill 및 Mars, 영국의 Armajaro 및 이탈리아의 Ferrero 등 7개 기업이며, 이미 가동 중인 PT Bumitangerang Mesindotrama사는 처리능력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 코코아생산자협회 (AIKI) 의 Piter Jasman 회장은 정부의 조치로, 회원사들의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2011년에는 30만톤의 생산량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인도네시아 Bogor Institute of Agriculture (IPB) 는, 인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이 향후 4년간 국가경제에 U\$ 809억을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IPB의 Erliza Hambali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이 2010-2014년의 기간 동안 U\$ 809억의 외화수입을 기록하여, 국가 주요 곡물로서 80%의 기여율을 기록하지만 ; 인도네시아 팜유의 55%는 국내에서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외화수입의 확충 및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해, 정부가 팜유 가공산업의 개발을 장려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Antara)

□ 필리핀

- 사우디계의 Fina Investment Asia가 필리핀에서의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재배, 수산양식업, 그리고 halal 식품가공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음. 사우디의 투자 예정금액은 약 U\$ 2.4억이며, 대상지역은 Mindanao섬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 1위의 음료회사인 Wahaha Group은, 필리핀에서의 설탕 생산을 위해 PHP 10억의 투자예정금액으로 필리핀의 무역부 및 투자청과 협의 중에 있음. Wahaha Group은 필리핀의 종합농천개척프로그램으로 일부 휴토가 예상되는 토지 중 약 6,000 hectare에 대해, 필리핀 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에 적절한 합작선의 소개를 요청하고 있음
- 농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쌀 연구소 (PhilRice) 및 국제 쌀 연구소 (IRRI)는 유전자조작 (GM) 쌀의 재배시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여 그 귀추가 주목

목 됨. 농림부는 안전이 입증 되지 못한 GM 쌀 보다는 유기농 농법에 주력해야한다고 하는 반면 ; PhilRice 및 IRRI의 학자들은 전임 행정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재배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세계 최초의 GM 쌀이라는 칭호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임

(출처 : GMA News, Manila Bulletin, Malaya, Fast Company 종합)

□ 태국

- 태국의 쌀 재고 판매가 부정의혹을 받아, 판매를 주관한 상무부의 Porntiva Nakasai가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음. 태국은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증가 및 11~12월부터 새로운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상무부 주관으로 9월 24일 정부 보유 560만톤 중 400만톤에 대한 제한경매를 실시하였음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용기 면적의 30%에 대하여 충격적인 사진과 함께 경고문을 부착하려는 태국 공공건강부의 예고법안이 일회성 사건이 되었음. 태국 공공건강부는 태국의 습관적 음주율이 1996년 37%에서 2009년 41%로 증가했다는 보고에 따라, 충격적인 사진과 함께 경고문을 부착하는 라벨링법안을 발의하여, 알콜통제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Abhisit총리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었음. WTO 규약에 따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동 문제가 노출 됨
- 전세계의 주류 회사들은, 충격적인 사진 부착이 주변국으로 퍼지는 도미노현상을 의식해, 자국 정부들에게 태국의 예고입법이 지나친 처사라고 로비를 함. 최종적으로, WTO는 태국 정부에게, 충격적인 사진 부착은 과도한 행위로 ; 태국의 음주감소는 라벨링법안 변경이 아닌, 국제청의 주세 세계개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통보 함. 태국의 현재 주세는 수입품 알콜 100%당 THB 400인데 반해, 국산은 알콜 100%당 THB 120이 부과되고 있음

(출처 : The Nation, Bangkok Post, Wall Street Journal 종합)

□ 베트남

- 세계 기후재해로 커피 시세가 12년 이래 최고가격으로 상승하면서, 베트남 농업농촌진흥부 (MARD)는, 2010년도 수출 목표를 110만톤, U\$ 16.7억에서, 117만톤 U\$ 180억으로 상향 발표함. 브라질의 건조 기후, 멕시코의 폭풍피해, 베트남의 홍수피해 보고 등으로 커피 가격은 U\$ 1,700/톤 -> U\$ 1,755/톤 -> U\$ 1,800/톤 등의 점진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음. MARD는 베트남이 생산하는 robusta종이 인스턴트 커피의 주재료로 시장이 계속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함
- 4월 싱가포르의 Olam International이 베트남에 인스턴트 커피 생산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 일본의 Marubeni사가 Vinacafe의 일본내 유통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 6월에는 미국의 Starbucks, Dunkin Donuts, Kraft Foods 등이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 (Vicofa)에 제후를 타진해왔으며 ; 9월에는 인도의 1위 커피업체인 CCL Products Group이 주요 커피 재배지역인 Dak Lak에서 U\$ 1,800억이 투자되는 공장 기공식을 가졌음
- 마니옥(manioc)은 베트남에서는 주로 사료로 사용 되지만, 중국에서는 주정(酒精)으로 사용이 됨. 중국의 에탄올 연간 수요가 600만 톤인데 반해, 생산량은 120만톤에 불과하여 ; 중국이 베트남과 태국에서 주정원료를 구매하면서 manioc가격이 VND 2,000/Kg에서 VND 4,800/Kg로 급등하여, 베트남에서는 가축사료로 manioc를 사용하지 못하고 쌀을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베트남 무역진흥공사의 Le Xuan Duong 수출지원처장은, manioc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역부에서는 이를 주요 수출농산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함
- 베트남의 농산물수출이, 강세를 보여온 곡물 및 견과류 중심에서, 과일류가 새로이 부상하면서, 항공화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유럽에 용과(dragonfruit), 람부탄(rambutan), 망고스틴(mangosteen) 등을 수출하는 호치밍시 소재 Rong Do사의 Mai Xuan Thin 무역부장에 따르면, 항공화물 비용이 비싼 편이지만, 과일이 신선한 상태로 도착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또한 30%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함. 호치밍시 - 대만을 주 2회 운항하고 있는 Eva 항공화물은 2010년에는 항상 만적된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고 밝힘. 베트남 항공운항국에 따르면, 2010년 1~7월의 기간에는 18.8만톤이 항공화물로 선적되어 전년 동기 대비 43.8%의 증가율을 기록함

(출처 : Wall Street Journal, VNN, VCCI, Intellasia, ASEAN Affairs 종합)